

# 중국의 궁실제도와 조선시대 궁궐의 영역분할에 관한 연구

김영모

조경정보개발원

## A Study on the Chinese Palace System and the Palace Structure of Chosŏn Dynasty

Kim, Young-Mo

Landscape Architectural Design Academy

### ABSTRACT

The research follows several steps. First, the Chinese 'WangSung' and 'KungSi' Systems are verified positively. Next, the structure of palace in Chosŏn Dynasty is deduced based on those Chinese systems. Finally, the common system that is also applied in other government-operated spaces is found.

The result can be summarized as follow. It is clarified from reviewing the Chinese 'WangSung' and 'KungSi' Systems that the 'OyoiCho' is located in 'WhangSung(the imperial city) but out of 'KungSung(the palace). Therefore, the research points out that all sort of theories explaining the 'OyoiCho' of Chosŏn Dynasty is a space of 'in-palace' are false.

The palace system of Chosŏn dynasty seeks the substantiality grounded on the substantial function of 'SamCho(three spaces)' rather than its strict principle dividing main spaces by several doors - 'KungMoon'.

Moreover, it is also certified that the 'ChŏnChoHooChim' system, literally the political court is located at the front and the private section is at the other(back) side, is directly applied on the palace of Chosŏn Dynasty. This idea has been developed into 'inner and outer' concept and represented in palace as the 'OyoiChŏn(outer palace) and NaeChŏn( inner palace)' concept.

In conclusion, the research suggests that the dual concept in space such as 'ChŏnHoo(front and back) and 'NaeOyoi(inner and outer)' basically comes from 'EumYang' theory and influences in building other government-operated spaces : for example 'ChongMyo(the royal ancestor's shrine)', 'SŏWon(a private school of Chosŏn dynasty), 'HyangKyo(a local school annexed to the Confucian shrine)' and

'KwanAh(a government agency)' .

*Key Words : Oyoicho, Samcho, ChŏnchoHooChim, Oyoichŏn and NaeChŏn*

## I. 서론

전통문제가 끊임없이 건축, 도시, 조경을 포함하는 환경설계분야에서 대두되는 사실은 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는 단절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를 거쳐 미래에까지 연결된다는 명백한 진리를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또,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창조하는 힘이 다양하고 풍부한 전통에서 비롯된다는 상상력의 힘을 바탕으로 한다는 사실로도 증명될 수 있다.

역사공간으로 분류되는 전통공간을 연구함에 있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하나는 개별적인 사례를 통하여 특수한 사실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양한 사례들을 토대로 공통적 사실을 발견하는 방법이다. 위의 두가지 접근방법 중 어느 것이 오늘날 계획·설계자들이 안고 있는 전통의 계승과 창조라는 화두를 풀어줄 방법인지를 단언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조정연구에 있어서 역사공간을 바라볼 때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왜 그렇게 구성되었는가'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진지한 해석이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고 한다면 위의 두 가지 접근방법에 있어서 후자의 연구방법이 보다 쉽고 폭넓은 이해와 해석을 가져다줄 가능성은 높다. 또한 이해와 해석된 사실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하는 차원이 결국은 현재의 조정계획가와 설계가의 몫이라면, 전통조경 연구자들의 1차적인 관심은 당연히 막연한 추론보다는 실증적인 사실에 기초한 공통적인 공간구성의 규범으로서 원리의 발견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역사공간을 대할 때 항상 그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공간유형은 궁궐이었다. 이는 곧 궁궐이 최고 권위를 가진 왕이 거처하며 활동하는 곳이자, 정치와 행정에 관한 최종결정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이러한 결정을 집행하고 감독하는 제반활동이 이루어지는

모름지기 왕조사회(王朝社會)의 중심이자 상징적인 공간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왕조사회에 있어서 궁궐은 그 상징적 위상으로 인하여 여타 관영공간(官營空間)의 전형으로서 적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그 연구적 가치는 다른 어떤 공간 유형 보다도 크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관아, 종묘, 사묘, 향교와 같은 여타 관영공간과 궁궐의 공간구성에 대한 공통적인 형식과 문법의 실마리를 찾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는 관영공간간의 공통적인 공간형식을 찾기 위한 출발점인 궁궐에 대한 연구가 그동안 수많은 논문과 연구의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궁궐공간 구성의 전거가 되었던 중국의 왕성계획이나 궁실제도(宮室制度)에 대하여 분명한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sup>1)</sup>에 기인한바가 적지 않다.

이러한 연구상황속에서 본 논문은 궁궐을 포함하는 여타의 관영공간을 구성하였던 공통적인 구성형식을 모색하기 위한 시론적 연구로서 조선시대 궁궐공간 구성의 전거가 되었던 중국의 궁실(궁궐)제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조선시대 궁궐내 공간의 전체 구성형식이 실체는 어떠한지를 중국의 고제도와의 비교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밝히고, 이를 기초로 궁궐과 여타 관영공간 사이의 공간구성 형식의 공통적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데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전체적인 연구내용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를 포함한다.

첫째로 궁궐의 공간구성에 기본적인 원리로 제시되고 있는 중국 궁실제도의 본질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 알려진 중국 궁실제도의 원전인 주례(周禮)의 고공기(考工記)와 삼제도회(三才圖會)의 조위침묘사직도(朝位寢廟社稷圖)를 기초로 '오문삼조', '삼문삼조' 제도의 내용을 살펴본다.

둘째로 중국의 궁실제도를 기초로 '외조'의 영역은 궁궐밖(중국에 있어서는 궁궐밖 황성안)에 위치하지 궁궐내에 위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러한 내용은 중국의 궁성계획과 조선시대 경복궁 등의 공간을 실증적으로 비교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셋째로 주례에서 제시된 ‘전조후침(前朝後寢)’ 제도는 중국은 물론 조선시대 궁궐의 영역을 분할하는 직접적인 방법이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조선시대 궁궐의 영역분할은 ‘전조후침’ 제도를 ‘외전’과 ‘내전’의 개념으로 보다 발전시켜 사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한다.

마지막으로 조선시대 궁궐의 영역분할이 ‘전조후침’에서 발전한 내전·외전의 구성방식이 일반적이었다는 사실을 토대로 종묘, 사묘, 관아, 향교와 같이 일견 기능적으로 아무런 관련성이 없을 것으로 보아왔던 여타의 관영공간간의 구성형식에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음을 조심히 체계화 제시해보고자 한다.

## II. 중국의 궁실제도

중국에 있어서 황제가 거처하는 궁성과 왕궁계획은 내용상 수도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왕성계획속에 포함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왕성계획의 가장 기본적인 전거는 주례 속에서 제시되고 있으며, 그 내용 속에는 왕성계획과 궁성계획이 분명하게 분리되어 설명되고 있지는 않다. 궁궐 자체의 계획과 관련된 내용은 훨씬 후대인 명나라때의 삼제도회의 조위침묘사직도를 통하여 나타난다. 본고에서는 왕성 및 궁성계획의 가장 기본적인 원전인 주례의 고공기 내용속의 왕성계획과 궁성계획의 전체구조를 살펴보는 것으로 연구의 실마리를 풀고자 한다.

### 1. 주례에 나타난 중국의 왕성 및 궁성계획(王城計劃) 구조

왕조체제에서 왕은 이념적으로는 최고 권력자이자 주권자였다. 이러한 이념의 원전(原典)이 되는 경전(經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서경(書經)<sup>2)</sup>이다. 서경의 주서(周書) 홍범(洪範)<sup>3)</sup>편에 표방된 왕이 모든 일의 기준이 되고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추황작극(惟皇作極)’의 논리는 왕의 권위를 보장하는 기본 논리로 받아 들여졌다.<sup>4)</sup> 왕이 이러한 지위를 온전히 향유하는 이상사회의 체제를 규정한 책이 주례(周禮)<sup>5)</sup>

이다.

궁궐 및 왕성의 전체 공간구조와 관련된 제도는 바로 주례의 고공기(考工記) 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주례 고공기의 기록 중 기술자들이 도성(都城)을 건설할 때 쓰는 제반기준을 상세히 기록한 장인(匠人)은 도성 건설과 관련하여 ‘장인 건국(匠人 建國)’과 ‘장인 영국(匠人 營國)’의 두 부분을 두고 있다. ‘건국’을 우선 말한 뒤 ‘영국’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장인 건국’ 부분은 도성 건설에서 수평을 구하고 방위를 정하는 측량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논하였으며, ‘장인 영국’ 부분은 노예제 사회인 서주(西周)시대의 도성 건설 제도를 전문적으로 서술하였다. 따라서 측량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장인 건국’ 부분은 논외로 하고 도성 전체의 배치원리로서 제시된 ‘장인 영국’의 전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匠人營國，方九里，旁三門，國中九經九緯，經塗九軌，左祖右社，面朝後市，市朝一夫。夏后氏世室，堂修二七，廣四修一，五室，三四步，四三尺，九階，四旁兩夾窓，白盛，門堂三之二，室三之一。殷人重屋，堂修七尋，堂崇三尺，四阿重屋，周人明堂，度九尺之筵，東西九筵，南北七筵，堂崇一筵，五室，凡室二筵，室中度以，堂上度以筵，宮中度以尋，野度以步，塗度以軌，廟門容大肩七個，門容小肩參個，路門不容乘車之五個，應門二轍參個，內有九室，九賓居之，外有九室，九卿朝焉，九分其國，以爲九分，九卿治之，王宮門阿之制五雉，宮隅之制七雉，城隅之制九雉，經塗九軌，環塗七軌，野塗五軌，門阿之制，以爲都城之制，宮隅之制，以爲諸侯之城制，環塗以爲諸侯經塗，野塗以爲都經塗 (국토개발연구원, 1982: 42~48).

이중 국도(國都)의 도시계획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잘 알려진 “좌조우사 면조후시(左祖右社 面朝後市)”<sup>6)</sup>이다. 여기서 “좌측에 조(祖), 우측에 사(社)를 두고, 전면에 조(朝), 후면에 시(市)를 둔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 하나는 그림 1처럼 궁성을 중심으로 조(祖)·사(社)·조(朝)·시(市)의 상대적 위치를 밝혀주는 동시에, 종묘(左祖)·사직(右社)·외조(面朝)·시장(後市)이 궁성의 주위에 나열되지 궁성 안에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는 시각이다 (윤정숙 역, 1995: 114~115). 다른 하나는 중심에 궁궐을 상징하기 않고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왕조사

회에 필요한 주요 기능의 상대적인 위치관계를 왼쪽에는 종묘, 오른쪽에는 사직, 앞에는 조정, 뒤에는 시장을 둔다(이상해 등 역, 2000: 400)는 견해이다. 이러한 양자의 해석 중 어느 것이 보다 옳은가 하는 문제는 중국의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조(朝)를 제외한 종묘, 사직, 시장이 궁궐속에 설치되는 기능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이때의 조(朝)도 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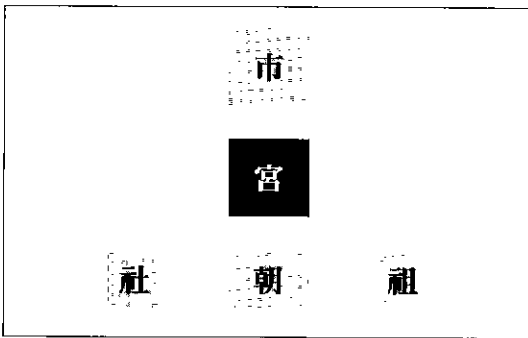


그림1. 궁성을 중심으로 한 상대적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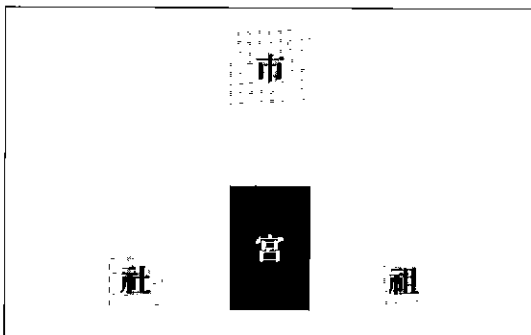


그림2. 관련기능들간의 상대적 위치

리적 전개상 궁궐내의 공간이기보다는 궁궐 밖의 기능을 상정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바꾸어 말하면 주례의 왕성계획은 그림 3처럼 궁정구(宮廷區) 계획이라 하며, 이는 궁성내의 계획인 궁성구(宮城區)와 궁성밖의 계획인 궁전구(宮前區)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궁전구는 외조를 중심으로 하고 종묘구(宗廟區)와 사직구(社稷區)를 포함한다. 반면에 궁성구는 왕이 정치를 시행하는 조(朝), 일상 거처하는 침(寢), 후비의 궁(宮), 일련의 관부차사(官府次舍) 등이 모두 궁성 내에 위치하여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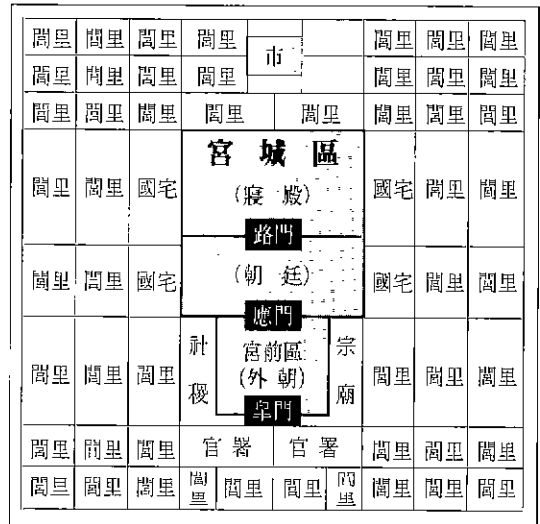


그림3 왕성 기본계획구조 개략도

계가 삼엄한 궁성구를 이룬다고 한다(윤정숙 역, 1995:111). 따라서 종묘, 사직, 외조는 궁정구(宮廷區) 계획중 궁전구의 범위에 속하지, 궁성계획의 내용이 아니며 궁성 안에는 다만 내조(內朝)·침궁(寢宮)·관련 관부차사(官府次舍)·왕실생활시설을 포함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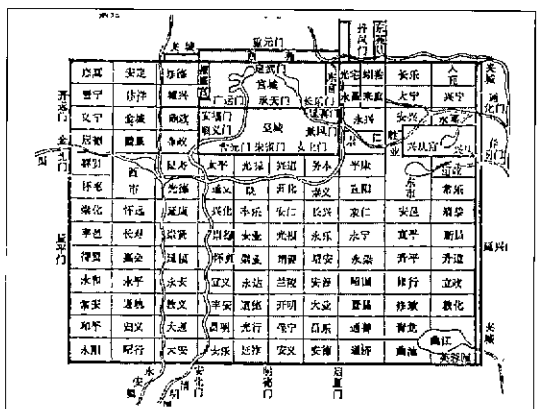


그림4 당의 장안성 복원도

자료 : 성주탁 역주(1993) 중국도성발달사 서울 학연문화사 p.69.

이는 중국의 도성계획제도가 주례 이래로 그림 4의 당의 장안성에서 보는 것과 같이 수문제 양전이 궁성밖

에 황성을 더 쌓아 종묘·사직·관서를 황성 안에 두고 궁성의 울타리로 삼아 황성제도를 창시한 이후부터 중국의 왕성은 크게 외성(外城·都城), 황성(皇城), 궁성(宮城)의 영역으로 분화되어 발전되었다(윤정숙 역, 1995: 22)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외조는 궁성안이 아니라 궁성밖, 황성안에 설치되는 외조로 보는 것이 보다 더 설득력을 갖는다.

위의 주례의 고공기 내용중 궁문과 관련시킬 수 있는 기록은 “묘문(廟門)은 대경(대(大)肩) 7개를 용납하고, 위문(闕門)은 소경(小肩) 3개를 용납한다. 노문(路門)은 승차(乘車) 5개를 용납하지 못하고, 응문(應門)은 이철(二轍) 3개를 용납한다(廟門容大七個, 闕門容小 參個, 路門不容乘車之五個, 應門二轍參個).”는 항목이다. 이는 문의 종류가 ‘묘문’, ‘위문’, ‘응문’, ‘노문’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위의 네 개의 문중 궁문과 관련된 문을 찾아보면, 먼저 위문<sup>9)</sup>은 묘안의 문이기 때문에 궁성의 문으로 볼 수 없다. ‘묘문(廟門)’도 고명에서 “제후가 묘문에서 나와 기다린다”고 한 기록과 소우정(小盥鼎)에서 “사람머리를 문에 들인다”고 한 것에서 말하는 주묘(周廟)의 정문으로서 후에 종묘의 정문이 된다. 빙례(聘禮)에서도 “빈(賓)이 들어올 때 군(君)이 대문 안에서 읍한다”고 하였던 그 묘문을 가리킨다.

한편, 주례의 ‘장인영국’ 부분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여타의 관련기록을 살펴보면 삼조와 관련된 삼문의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 중국에 있어서 문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문의 제도는 평면조직의 중심을 이루었다고 한다(이상해 등 역, 2000: 89). 따라서 삼조의 기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의 기능을 분할하는 관련된 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외조의 정문에 관한 기록은 주례 이외의 여타의 옛 전적들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전적들은 외조(外朝)의 조문(朝門)을 고문(皐門)이라고 칭하였다. 고문이란 명칭은 시경(詩經)에서도 보이는데, “남문이 곧 고문이다.”는 기록이 그것이다. 또한 일주서(逸周書), 시경(詩經), 좌전(左傳) 등의 문헌속에서 외조(外朝)의 조문(朝門)을 고문(皐門)임을 밝혀 놓고 있어 결국, ‘고문(皐門)’은 외조의 정문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응문은 주서(周書)의 고명에 의하면 “내조(內朝: 治朝)의 조문(朝門)”이라고 되어 있다. 이내

조는 왕이 일상 못 신하들을 접견하여 사무를 보는 조이다. 또한 이 응문 안의 내조와 노문 안의 침궁(寢宮)은 궁성구를 이룬다. 마지막으로 노문은 “대침(大寢)의 문이다”와 “노침(路寢: 正寢)의 문이다.”(국토개발연구원, 1982: 29~31)는 기록으로 볼 때 연조의 정문이 됨을 알 수 있다.

궁성 내부의 계획제도에 관련하여 주례의 장인영국의 대목중 관심을 끄는 것은 “노문의 안에는 9실이 있어서, 9빈(왕궁에서 왕후를 도와 사무를 보는 여관으로, 바로 제왕의 첩입)이 거처한다. 노문의 바깥에는 9실이 있어서 9경이 그곳에서 정무를 처리한다(內有九室, 九賓居之外有九室, 九卿朝焉)”는 항목이다. 이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조후침(前朝後寢)’의 궁성안의 계획제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노문을 말하여 ‘안에 있다’고 하고 ‘거기에 거처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나서 ‘응문’을 언급하여 ‘바깥에 있다’고 하고 ‘거기에서 조회한다’고 하였다. 순서로 볼 때 분명히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서술하였다. 그 내외의 경계는 당연히 ‘노문’이다. 노문의 안은 ‘안에 있다’의 범위이고 노문의 바깥은 ‘바깥에 있다’의 범위이다. 또한 ‘안에 있다’이므로 ‘거기에 거처한다’고 하였고, ‘바깥에 있다’이므로 ‘거기에서 조회한다’고 한다. ‘거기에 거처한다’는 것은 당연히 ‘침(寢)’을 가리키고, ‘거기에서 조회한다’는 말은 ‘조(朝)’를 가리킨다. 이 조는 치조(治朝)로, 내조(內朝)라고도 칭한다. 바깥쪽을 조(朝), 안을 침(寢)으로 하였으니 전조후침의 제도이다(윤정숙 역, 1995: 116).<sup>10)</sup> 이는 궁성 안은 표 1처럼 전조후침의 제도를 보여주는데 응문은 정조(正朝: 치조)의 조문(朝門)이고 노문은 노침(路寢: 정침)의 문인데, 이때 노문은 바로 조와 침을 구분하는 경계선으로 노문의 밖은 조이고 안은 침궁이 된다.

표 1. 전조후침과 문의 관계

궁정구역	관련대목	기능	비고
궁성구	안에 있다. 거기 거처한다.	寢	寢宮區
	바깥에 있다. 거기에서 조회한다.	朝(治朝, 內朝)	內朝區
궁전구		外朝와 祖,社를 포함	

결국, 주례의 내용 중 왕성계획 전체와 궁궐제도 자체에 관련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왕성의 계획원리로 제시된 것이 '좌묘우사 면조후사'의 내용이며, 이는 궁성을 중심에 두고 그 주위로 종묘, 사직, 외조, 시장이 배열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왕궁 및 궁성계획과 관련하여 '삼문삼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타의 고대의 문헌 기록을 토대로 외조, 치조, 연조와 이와 관련된 고문(皋門), 응문(應門), 노문(路門)을 관련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궁궐 자체의 배치에는 '전조후침' 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2. 명시대 삼재도회의 조위침묘사직지도와 중국의 왕성 및 궁성계획 구조

주례는 기본적으로 국가를 구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만큼 궁궐에 관한 언급은 각 관료들의 역할을 서술하는 부분에 분산되어 있다. 이러한 서술들을 종합하여 궁궐의 공간구조를 정리한 것은 훗날 후대의 일이다. 그런 책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중국 명나라 때에 만들어진 삼재도회(三才圖會)<sup>11)</sup>라는 책이다(홍순민, 1996: 71~72). 이 책에는 궁궐에 관한 내용이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궁궐의 구조에 관해서는 다음에 제시한 조위침묘사직도(朝位寢廟社稷之圖)라는 도면이 있다. 이 도면에서는 종묘와 사직의 위치와 기능은 물론 궁문과 삼조계획과 관련하여 오문삼조의 제도를 예시하여 놓고 있다.

조위침묘사직지도는 중국의 궁성계획에 대한 전체 면모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주례의 고공기와 몇 가지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즉, 성곽과 궁성을 쌓는 높이(雉)에 대한 기록이다. 조위침묘사직지도에는 '성우구치(城雉九雉)', '궁우칠치(宮雉七雉)'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주례의 "……王宮門阿之制五雉, 宮隅之制七雉, 城隅之制九雉,……(국토개발연구원, 1982. 33~34)"라는 기록과 완전히 부합한다. 왕궁의 문기둥의 제도는 높이가 5치(길이가 3장이요, 높이가 1장임)이고, 궁성의 기둥 제도는 높이가 7치이며, 성곽의 기둥 제도는 높이가 9치였다는 것이다.

다만, 주례에서는 왕성계획 전체의 구조가 왕궁, 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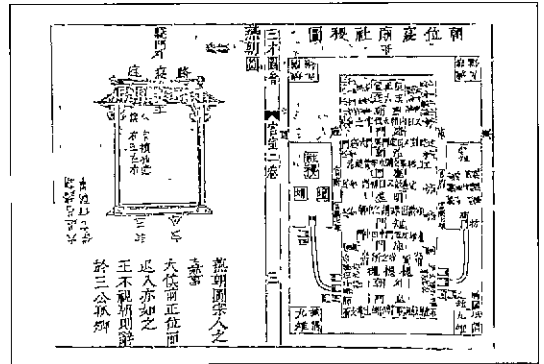


그림 5 조위침묘사직지도와 연조도

자료 : 왕기와 왕사의(만력 37년, 1609) 상해 : 상해고적출판사 영인본, p. 1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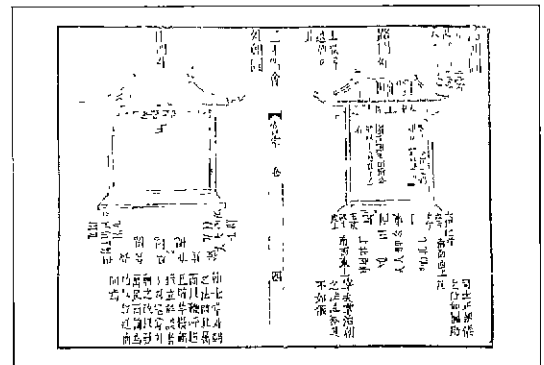


그림 6. 치주도와 연조도

자료 : 왕기와 왕사의(만력 37년, 1609) 상해 : 상해고적출판사 영인본, p. 1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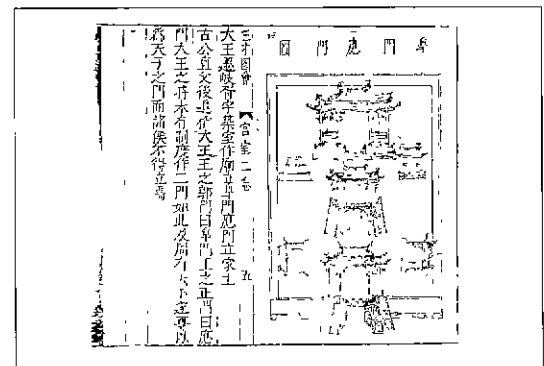


그림 7 고문응문도

자료 : 왕기와 왕사의(만력 37년, 1609) 상해 : 상해고적출판사 영인본, p. 1006.

성, 성곽의 3중 구조로 설명되고 있는데 조위침묘사직지도에서는 궁성속에 왕궁의 계획을 포함시켜 전체 왕성계획의 구조를 궁성과 성곽으로 이원화시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이 그림을 본다면 주례의 내용에서 제시된 종묘와 사직이 궁성밖에 위치하고, 또 궁성의 영역에 외조공간을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외조가 궁성밖이 아니라 궁성안의 공간이라는 시각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조위침묘사직지도의 작성 의도가 조정과 종묘, 사직의 상대적인 위치관계를 도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도해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외조 안의 공간에 종묘와 사직을 함께 표현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종묘와 사직을 굳이 외조와 동선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의도를 통해서도 외조의 영역과 종묘와 사직이 관련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러한 성곽제도뿐만 아니라 그림 5와 같이 궁문은 남에서 북으로 들어가면서 중앙을 남북으로 긋는 중심축이 궁궐의 주요부를 이루는데 그 부분은 다섯 개의 문. 곧 오문으로 구역이 구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문은 남에서 북으로 들어가면서 고문(阜門), 고문(庫門), 치문(雉門), 응문(應門), 노문(路門)으로 이름이 붙는다.

각각의 문과 그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장 바깥문인 고문(阜門)에는 고고(皋鼓)라고 하는 북을 달아 놓고 송사에 관계되는 일을 처리하는데 조사가 관장한다고 한다. 두 번째 고문(庫門)은 궁궐을 드나드는 빈객 다시 말해서 고위 관료들이 머무는 곳이다. 치문(雉門)은 다섯 문 가운데 중문이라고도 불리는 곳으로 어린 호랑이(稚虎)를 그려 놓았기 때문에 치문이라고 불리는 듯하다. 응문(應門)은 응고(應鼓)라는 북을 달아 놓았고, 조문(朝門)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노문에는 노고(路鼓)라는 북을 달아 놓았으며, 호문(虎門)이나 필문(畢門), 대침문(大寢門)이라 불리기도 한다(홍순민, 1996: 74). 첫 번째 고문 안이 외조, 네 번째 응문 안이 치조, 다섯 번째 노문 안이 연조를 이른바 삼조이다

여기에 덧붙여 삼조 각각에는 별도의 도면과 설명이 따른다. 먼저 그림 6의 외조도에서는 외조를 두 번째 고문밖(庫門外)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치조(그림 6)는 네 번째 노문밖(路門外), 연조(그림 5)는 침문밖(寢門外)이다(왕기와 왕사의, 만력 37년, 1609. 1005~

1006). 이때 조위침묘사직지도에서 제시한 오문과 삼조의 기능을 구별하면 앞서 살펴본 주례와 여타의 문헌에서 제시된 내용과 완전히 일치한다. 즉, 가장 바깥의 문은 고문(阜門)이고 첫 번째 고문 안 두 번째 고문밖이 외조공간이다. 네 번째의 응문은 조문(朝門)으로서 치조(내조)의 정문이 된다. 다섯 번째의 노문은 침궁 지역의 정문으로서 대침문이며, 치조와 연조를 구획짓는 문이 된다. 한편, 조위침묘사직지도에서 마지막으로 눈길을 끄는 것은 고문응문도(그림 6)와 설명내용이다. “대왕의 곽문은 고문(阜門)이고, 왕의 정문은 응문(應門)인데..... 천자의 문과 제후의 문은 양립할 수 없다.(大王之廓門曰阜門王之正門曰應門.....爲天子之門而諸侯不得立焉)(왕기와 왕사의, 만력 37년, 1609: 1005~1006)”는 대목이다. 이는 뒤에 후술하게 될 고려시대의 기록에 보이는 ‘천자는 오문’, ‘제후는 삼문’이라는 기록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천자와 왕의 궁문구성에 분명한 차등이 있었을 것이란 추측을 가능케 한다.

이상의 사실들을 기초로 조선시대 경복궁 창건의 가장 실증적인 사례로 제시되었을 중국의 북경성의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왕성계획의 구조로서 ‘오문삼조’ 또는 ‘삼문삼조’ 제도가 직접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오문삼조로 보면 천안문(처음에는 承天門이었으나 후에 天安門이 됨), 단문(端門), 오문(午門), 태화문(太化門), 건청문(乾清門)이고, 삼조란 오문 밖의 외조, 태화문 안 태화전 뜰의 치조, 건청문 안 건청궁 뜰의 연조를 말한다(윤정숙 역, 1995: 12). 또는 삼문삼조로 말하여 천안문을 첫 번째 고문으로 오문을 응문, 태화문을 노문(이상해 등 역, 2000: 89)으로 보기도 한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4번째 응문과 5번째 노문을 달리 보는 차이는 있지만, 천안문을 황성의 정문이자 첫 번째 고문으로 상정하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앞에서 외조공간은 궁성밖에 위치하고 종묘와 사직을 포함하는 공간이라고 하였는데, 황성의 정문인 천안문 안 오문 밖에는 그림 8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러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궁성내의 배치원리로 제시되는 ‘전조후침’ 제도이다. 그림 9와 같이 고궁(故宮)은 황제가 정무를 처리하는 전조 부분으로써 태화전(太和殿), 중화전(中和殿), 보화전(保和殿) 등 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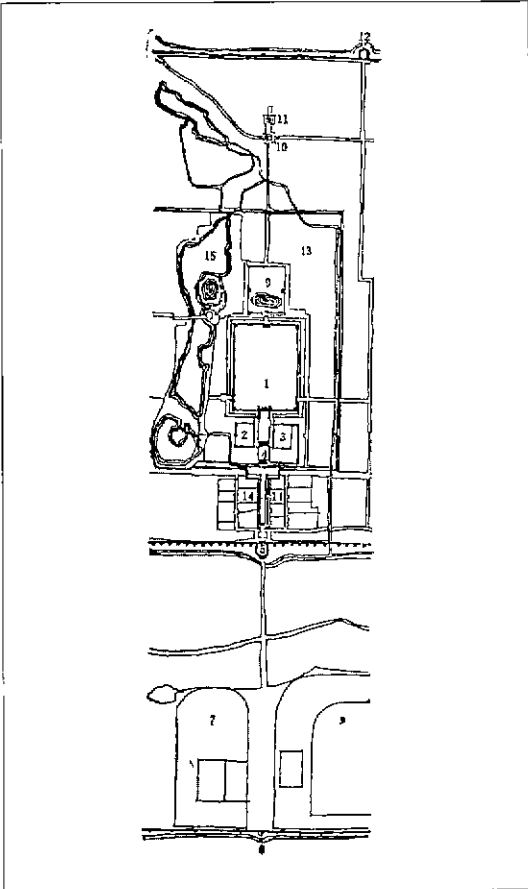


그림 8. 중국 명시대 북경성 남북중축선 배치 개략도

자료 · 윤정숙역(1995) 중국 도성계획의 원리 서울: 이회출판사, p. 83.

범례 · 1. 자금성(紫禁城); 2. 사직단(社稷壇); 3. 태묘(太廟); 4. 승천문(承天門·天安門); 5. 정양문(正陽門); 6. 영정문(永定門); 7. 산천단(山川壇); 8. 천단(天壇); 9. 경산(景山); 10. 고루(鼓樓); 11. 종루(鐘樓); 12. 안경문(安定門); 13. 황성(皇城); 14. 아서(衙署); 15. 태액지(太液池)

개의 대전이 집중되어 있다. 전조의 뒤쪽에는 황제의 거주와 오락을 위한 내정 부분으로 건청궁(乾清宮), 교태전(交泰殿), 곤녕궁(坤寧宮) 등의 건축군이 배치되고 있는(한동수 역, 1993: 29~31) 이른바 전조후 침제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 III. 조선시대 궁궐의 영역분할

유교를 정치이념으로 삼아 주나라 때의 문물제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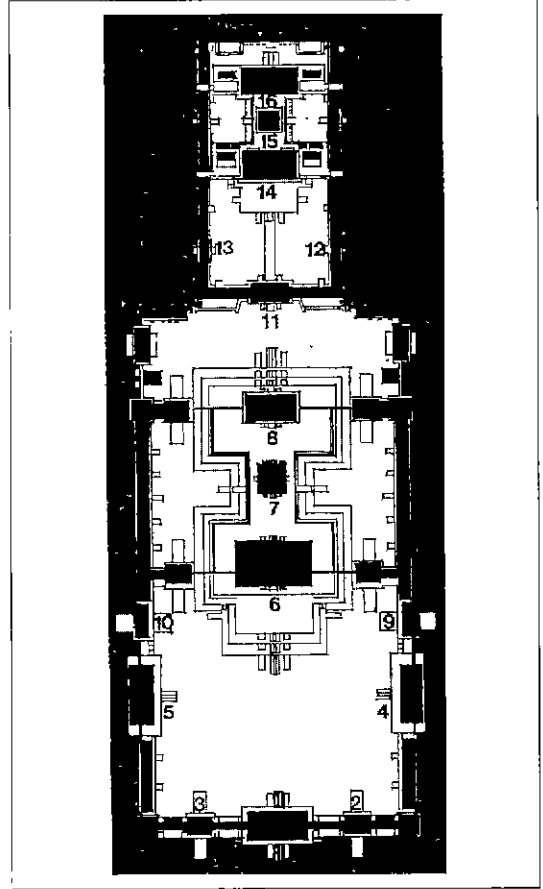


그림 9. 고궁 주축선상의 주요 건축평면도

자료 · 리원허(2000) 중국 고전건축의 원리. 이상해 외 (역). 서울: 시공사, p. 124

범례 · 1. 태화문; 2.昭德門, 3. 貞度門; 4. 體仁閣; 5. 弘義閣; 6. 太和殿; 7. 中和殿; 8. 保和殿; 9. 左翼門; 10. 右翼門; 11. 乾清門; 12. 景運門; 13. 隆宗門; 14. 乾清宮; 15. 交泰殿; 16. 坤寧宮

이상형으로 하는 상고주의적(上古主義的) 역사관에 철저하였고, 주례의 고공기의 내용과 북경 자금성의 계획을 가까운 시제로서 응용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sup>2)</sup> 조선왕조에 있어서 이러한 중국의 왕성 및 궁실제도는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 1. 조선시대 궁궐에서 '삼문삼조'와 '오문삼조' 제도 적용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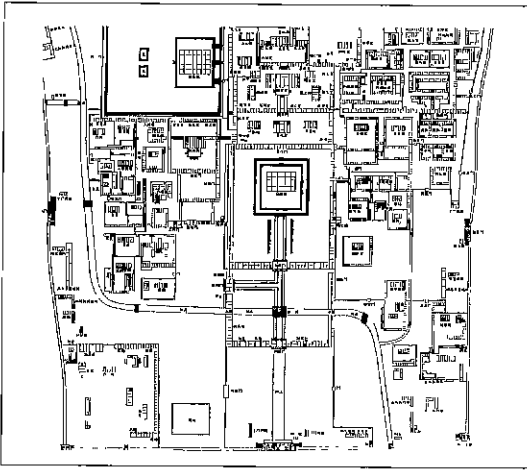


그림 10. 경복궁도형중 정문에서 침전영역  
 자료 : 한국조경학회(1999) 동양조경사. 서울: 문운당. p. 115.

결론적으로 말하면 조선시대 궁궐공간의 구성에는 중국에서처럼 삼문이든 오문이든 엄격하게 궁문에 의하여 삼조공간을 확정하기 보다는 삼조의 기능에 보다 충실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실증적으로 경복궁을 그 사례로 살펴보면 그림 10과 같이 정문에서 침전까지의 주요 문은 광화문(光化門)<sup>13)</sup>, 홍례문(弘禮門)<sup>14)</sup>, 근정문(勤政門)<sup>15)</sup>, 사정문(思政門)<sup>16)</sup>, 향오문(嚮五門)<sup>17)</sup>의 다섯 개의 문으로 나타난다.<sup>18)</sup> 이때 문의 개수가 다섯 개이기 때문에 오문삼조나 삼문삼조제도가 적용되었다고 보는 견해<sup>19)</sup>가 있어왔다.

그러나 단순히 궁문의 개수만으로 오문삼조가 그대로 적용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 앞서 지적한 대로 오문이든 삼문이든 궁문의 기능은 삼조의 기능을 분할하고 있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한다. 만일 광화문을 첫 번째 고문(皋門)으로 상정한다면, 고문안은

외조(外朝)로서 종묘와 사직, 관아기능이 들어서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은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안이 아니라 오히려 바깥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경복궁에 있어서는 첫 번째 고문은 설치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광화문을 두 번째 고문으로 본다면 조위침묘사직지도에서 설명하는 외조는 두 번째 고문밖이라는 내용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광화문 밖은 조선시대 의정부와 한성부, 육조의 관아들이 위치하고 있었던 육조거리로서 궐외각사 구역이었으며, 육조거리의 좌우에는 종묘와 사직이 위치하고 있음도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나라의 궁궐중 고려왕궁(高麗王宮)에 대한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 권 4, 문궐조(文闕條)의 기록과도 부합한다. “천자의 문은 고문(皋門), 고문(庫門), 치문(稚門), 응문(應門), 노문(路門)이라 하여 다섯 문이고 제후들은 이 중 두 문(皋門과 稚門)을 없애고 고문(庫門), 응문(應門), 노문(路門)이라 한 것뿐인데, 궐문제도는 자못 제후의 예를 따랐다(한국조경학회, 1996: 188).”는 기록이다. 또한 조선시대 대한제국시기의 광무(光武) 8년(1904) 이순익(李淳翼)이 지은 덕수궁 중화문(中和門) 상량문에서도 “고문(皋門)과 응문(應門)을 세우기에 합당하다(允合立皋應)”라는 궐문의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한국조경학회, 1996: 188). 이 두 기록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제시해 준다. 궐문제도는 제후의 예에 따라 첫 번째 고문(皋門)은 설치하지 않았으나, 조선시대 그것도 중국과의 사대주의적 관계를 벗어난 대한제국시기에 들어와서야 비로서 왕이 황제로 격상된 위상에 걸맞게 첫 번째 고문을 세울만 하다고 한 사실이다. 이는 결국 조선시대에 있어서 궁문의 사용에는 중국과 분명한 차등을 두어 사용하고 있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며, 이로 볼 때 조선시대 궁궐의 궁문 제도를 중국처럼 엄격하게 적용

표 2. 오문제도와 조선시대 궁성문의 비교

五門·三門	경복궁의 궁문	창덕궁의 궁문	창경궁의 궁문	경희궁의 궁문
路 門	嚮五門	없음	없음	없음
應 門	勤政門(應門)	仁政門(應門)	明政門(應門)	崇政門(應門)
稚 門	洪禮門( ? )	進善門( ? )		中門( ? )
庫 門	光化門(庫門)	教化門(庫門)	弘化門(庫門)	興化門(庫門)
皋 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표 3. 각 궁궐의 전조후침 관계

구 분		궁 궐		景福宮	昌德宮	昌慶宮	慶熙宮
		왕비정침	왕 정 침	교태전(交泰殿)	대조전(大造殿)	통명전(通明殿) 경춘전(景春殿)	융복전(隆福殿)
후침(後寢)	전각명	왕비정침	교태전(交泰殿)	대조전(大造殿)	통명전(通明殿) 경춘전(景春殿)	융복전(隆福殿)	
		왕 정 침	강령전(康寧殿)	없음	환경전(歡慶殿)	희상전(喜祥殿)	
전조(前朝)	전각명	편 전	사정전(思政殿)	선정전(宣政殿) 희정당(熙政堂)	문정전(文政殿)	흥정당(興政堂) 자정전(資政殿)	
		정 전	근정전(勤政殿)	인정전(仁政殿)	명정전(明政殿)	숭정전(崇政殿)	

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궁문제도에 보다 더 자유로울 수 있었던 창덕궁이나 경희궁에서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각각의 이궁은 정문에서 침전까지가 삼문(창경궁, 경희궁)이나 이문(창경궁)으로 나타나거나 또는 침전 영역인 연조를 구획하는 노문이 정궁인 경복궁 이외에는 표 2와 같이 다른 이궁에서는 아예 나타나지 않는 점도 그렇다.

결국, 조선시대 궁궐에 있어서는 경복궁과 이궁의 궁문제도에서 보이듯 중국에서처럼 엄격하게 모문이나 삼문제도를 지키면서 궁문에 의하여 삼조의 기능을 설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정궁인 경복궁에 있어서는 범궁으로서의 위상과 왕조사회의 기틀이 되는 삼조의 기능만큼은 엄격히 지켜져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2. 조선시대 궁실제도의 원칙으로서 전조후침

주례에서 제시된 궁성안의 계획인 '전조후침' 제도는 중국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궁궐내의 영역을 분할하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된 규범이었다. 이는 조선시대 궁궐조영에 관련된 가장 실증적인 자료인 궁궐지의 내용을 검토할 때도 아주 빈번히 등장하는 문구이다. 그러한 예로서 경복궁 동궁에 대한 궁궐지의 기록에는 “.. 더구나 선왕이 국가를 세운 초년에 이곳을 서울 삼는 길점을 얻어 침전을 뒤로하고 조정을 앞(前朝後寢)에 하는 법에 따라 자리를 바르게 앉히고, 조묘를 왼쪽으로 하고 사직을 오른쪽(左廟右社)에 두는 법에 따라 방위를 분별하였다.”(서울학연연구소, 1994: 49~51)는 기록이다. 또한 창덕궁의 왕비침전인 대조전의 증전

상량문에서도 “.....궁궐의 제도는 좌척우평을 본반아야 하나 건곤의 방위만은 반드시 궁전과 침전의 구분이 있어야 한다(乾坤之辨方必有宮寢之異位).....”(서울학연연구소, 1994: 73)는 기록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전조후침의 궁궐조성방법은 창덕궁 이후에 조성된 경희궁에서도 확인된다. 경희궁의 침전인 희상전 중건상량문에도 “...아아! 우리나라는 두 개 궁궐에서 시작하여 우평좌척으로 임금이 있는 곳을 두드러지게 하고 후침과 전조(前朝後寢)는 중문으로 통하게 하여 일제히 제왕의 자리가 갖추어짐을 열어 놓았다.....”(서울학연연구소, 1996: 87)고 하여 ‘전조후침’의 제도는 정궁이든 이궁이든 궁궐을 조성할 때 중심공간의 영역을 구분짓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나타난다.

궁궐지의 기록과 각종 조선시대의 궁궐지도<sup>20)</sup>를 비교하여 전조후침의 관계를 정리하면 표 3과 같이 정리된다. 전조후침을 위치에 따른 전후관계로 구분할 때 경복궁은 전조후침의 전형적인 사례로 꼽힌다. 근정전에서 사정전에 이르는 정치를 행하는 공간과 그 뒤에 이르는 강녕전과 교태전 등 침전의 위치가 앞뒤로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다. 이에 비해서 창덕궁의 경우는 명확한 위치관계를 이루지는 않는다. 왕비 침전인 대조전은 인정전의 동쪽 방향에 놓여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인정전이나 선정전 등 정치를 행하는 부분이 궁의 정문인 든화문에 가까이 자리잡고 있고 그 뒤편에 내전의 여러 전각이 자리잡고 있는 점에서는 역시 전조후침의 기본관계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김동욱, 1999: 99).

여기서 흥미있는 사실은 조선시대 내내 실질적인 편전의 기능을 수행하였던 창덕궁의 편전인 희정당<sup>21)</sup>은

침전인 대조전의 축선에 일치하고 있는 점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서궐인 경희궁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승정전, 자정전의 정사공간이 진입문으로부터 하나의 축을 이루며 배치되지만 침전인 회상전, 융복전 등은 이에서 동쪽으로 치우친 위치에 배치되고 있어 정확한 전후관계 보다는 드러남(조정공간)과 내밀함(침전공간)의 관계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듯 이궁에 있어서 조정과 침궁의 전후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전조후침의 기본적 원리가 조선시대에 있어서는 '내전', '외전'의 개념으로 보다 더 발전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 3. 조선시대 궁궐의 중심영역 분할방식으로서 '외전(外殿)과 내전(內殿)'

궁궐을 조정과 침궁의 기능으로 분리하고 이를 전후의 관계를 통하여 위치를 설정하는 전조후침의 제도는 조선시대에 궁궐영역을 분할할 때에는 일관되게 내전과 외전이라는 개념으로 발전되어 사용되어졌다. 그 예로서 세종 원년 8월에 경복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수리에 임해서 왕은 외전이 칙명을 맞는 곳이므로 불가불 수리해야 하지만 내전은 그대로 두라는 명을 내리고 있고, 숙종 21년에 처음 편찬된 궁궐지에서는 창덕궁의 인정전을 '수조정전(受朝正殿)', 대조전을 '대내정전

(大內正殿)'으로 정의하여, 조화를 받는 영역과 대내 즉 내전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각각의 정전으로 인정전과 대조전을 명시하였다.

표 4에서 보는 것처럼 외전은 왕이 신하들의 조화를 받은 정전, 법전이 그 중심이 되는 영역이고 내전은 왕과 왕비, 직계가족 즉 왕자, 공주 등의 일상생활공간으로서 왕과 왕비의 정침과 연침, 왕이 일상의 정치를 행하는 편전이 포함되는 영역으로서 궁궐의 영역을 내외로 구분하는 관념은 일반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때 내전의 위치를 상정함에는 깊숙함, 은밀함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음이 나타난다. 창덕궁의 왕비 침전인 대조전의 중건상량문에 보면 ".....우리 제도는 내전의 깊고 엄숙함을 중시하여 .....(我家制度最重內地深嚴....)"(서울학연구소, 1994: 73)라고 하여 내전의 깊음, 엄숙함을 강조한다. 또 정조가 지은 경희궁지에서도 ".....내전은 깊고 엄하여 비록 내사라고 하더라도 그 위치와 순서를 알 수 없을 것을 두려워하여 기록을 만들어 살펴볼 수 있게 한다.....(.....燕朝深嚴雖內史亦不得詳其位序故爲之 有少考焉.....)"(서울학연구소, 1996: 75)라든가, ".....규모가 정전과 편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바로 편안히 지내는 곳을 깊숙하게 하기 위해서이다.(.....正殿便殿之別 명爲燕之深.....)"(서울학연구소, 1996: 105)라고 하여 외전과 내전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이는 외전은 밝이고

표 4. 각 궁궐 전각명과 관련기록

전각명	궁궐명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외전	정전	근정전	인정전	명정전	승정전	
		-정전이다.	-조화를 받던 정전이다.	-창경궁의 법전이다.	-신하들의 조화를 받는 정전이다.	
내전	편전	사정전	선정전	회정당	문정전	홍정당
		-매일 아침 정사를 보는 곳	-옛편전이다. 간단한 편전이다.	-편전으로 일을 보던 곳이다.	-편전중의 으뜸전각이다.	-선조 임금들이 정사를 보던 곳이다
	왕정침	강령전				회상전
						-임금이 거처하던 내전이다.
	침전	교태전	대조전	경춘전	통명전	융복전
			-대내 근전의 정당이다.	-내전이다 -여러 선조대의 내정당이다.	-창경궁 안의 정전이다. -내전에서 바로한 법전이다.	-정침은 융복전이다. -궁궐의 정전이다.

편전은 정사를 행하는 공간이지만 내전에 속함으로써 그의 기본적인 조영원리는 이른바 편하게 지내는 곳을 엄밀하게 하는 ‘연육지심(燕涓之心)’의 원리라는 것이다.

내전과 외전의 이원론적 공간구획의 원리는 조선시대 궁궐조영에 가장 직접적인 사상으로 제시된 음양론이 간여된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에 있어서도 원래 전조후침제도 자체가 음양론에 기초하였음이 밝혀지고 있다. 즉, 명청대의 궁전인 자금성은 크게 조정과 침궁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조정은 양에 속하고 침궁은 음에 속한다(한동수, 1997: 71). 따라서 조정에는 양의 수에 따라 삼대전(태화전, 중화전, 보화전)을 내정에는 양침<sup>23)</sup>(건청궁, 곤령궁)을 조성하였다. ‘전조후침’ 제도가 외전·내전의 기능적인 개념으로 발전된 조선시대의 궁궐의 구성방식도 결국은 음양의 이원론적 시각에서 발전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또한 궁궐지를 통하여 부단히 나타나는 ‘규천규지(規天規地: 하늘의 둥근 규격과 땅의 네모난 규격)’, ‘환규방거(環規方規: 하늘의 둥근규격과 땅의 네모난 규격)’, ‘음양으로 위치를 구분하고(陰陽以辨位置)’, ‘천지로 형상을 본뜨고 음양이 방위가 되었다(天地乎體象陰陽乎經緯)’는 곧 궁궐조영의 기본적인 원리가 음양론에 있었음을 드러내 주는 기후들이다.

#### IV. 결론

중국의 왕성 및 궁실제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조선시대 궁궐의 공간구성의 형식을 찾아, 여타의 관영공간과의 공통적 형식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던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로 중국의 궁실제도에 나타나는 ‘오문삼조’와 ‘삼문삼조’ 중 외조는 궁성밖, 황성 안에 위치함으로써 궁궐내에 설치되는 공간이 아님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지금까지 조선시대의 궁궐공간의 영역을 설정할 때 외조를 궁궐내의 공간으로 설정하고 있는 잘못된 시각을 수정하여야 할 것임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로 조선시대의 궁궐제도는 엄격히 궁문에 의하여 삼조의 공간을 확정하기 보다는 내용상 삼조의 기능에 보다 더 충실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세째로 조선시대 궁궐내의 공간을 분할하는 외형적

형식은 전조후침(前朝後寢) 제도가 보다 직접적으로 적용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궁실제도에 기원한 전조후침의 원리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외전(外殿)과 내전(內殿)의 개념으로 발전되어 사용된 것이 보다 일반적이었다.

마지막으로 ‘전후’, ‘내외’와 같은 이원론적 공간구성 형식은 궁궐조영의 가장 기본적인 사유체계인 음양론에 기초되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궁궐의 이원론적 공간분할의 인식론은 외삼문(外三門)과 내삼문(內三門)에 의하여 중심영역을 두 부분으로 나누고 공간상에 배치시키는 종묘(前廟後寢)<sup>24)</sup>, 서원(前學後廟), 향교(前廟後學), 관아<sup>25)</sup> 등의 여타 공간유형의 전거로 제시되지 않았을까 하는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관련성은 추후의 연구과제로서 규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 1 이러한 궁실제도의 논의에 대한 연구는 이강근(1983)과 홍순민(1996)의 논문에서 일부 보인다. 그러나 이강근은 주례의 궁실제도를 ‘삼문삼조’ 제도로 요약하면서, 그 삼문을 고문(庫門), 치문(雅門), 노문(路門)이라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명확치 않은 한계가 있다. 한편, 홍순민의 논문에서는 삼제도회를 중심으로 ‘오문삼조’ 제도를 설명하고 있지만 단순히 소개하는 차원에 그치 주례와의 내용을 명확히 판권짓지 못하고 있고 실제 조선시대 궁궐에 대하여 이러한 오문삼조 제도를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

주 2 중국 최고의 경서(經書) 오경(五經) 또는 십이경(十三經)의 하나로 우(禹), 하(夏), 상(商), 주(周) 사대의 사실(史實), 사상(思想) 등을 기록하여 백편(百編)으로 된 것을 공자가 책정(刪正)하였다고 한다. 현존하는 것은 오십 편뿐이다.

주 3 하나라 우(禹) 임금 때에 낙수(洛水)에서 나온 신귀(神龜)의 등에 있었다는 구장(九章)의 문장(文章)으로서, 천하를 다스리는 대법(大法)으로 삼은 것.

주 4 원본미지서전집주(原本備旨書傳集註) 육권, 주서(周書) 홍범(洪範) 이이희(二以會) 영인본 p.467 “五皇極 皇建其有極 敘時五福 用敷錫厥庶民 惟時厥庶民 于汝極 錫汝保極”

주 5 주례(周禮)는 주대(周代)의 관제(官制), 즉 국가의 행정조직과 각관(各官)의 직제를 기록한 중국의 고전이라고 한다. 주나라 주공(周公) 단(旦)의 찬(撰)이라 전한다. 천지(天地)와 춘하추동(春夏秋冬)에 상응하여 천관(天官), 지관(地官), 춘관(春官), 하관(夏官), 추관(秋官), 동관(冬官)의 육관(六官)으로 나누어 이에 속하는 직장(職掌)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한(漢)나라 정현(鄭玄)의 주(註)와 당(唐)나라 가공언(賈公彥)의 소(疏)가 있다.

이 가운데 등관이 토목공사와 공업행정 일반을 관장하는 중앙부서이나, 등관에 대한 당초의 기록이 실전됨으로써 춘추전국시대(B.C 770~B.C 403)에 써졌다고 보아지는 고공기(考工記)를 대입하여 편찬한 것이다. 고공기는 주대에서 명초(明初)까지의 중국에 있어서의 기술에 관한 백과사전이기도 하다.

- 주 6. 좌측에 조종(祖宗)인 종교(宗廟), 우측에 사직단(社稷壇), 전면에 조정(朝廷), 후면에 시장(市場)을 둔다는 계획내용.
- 주 7. 대경(大廟)은 정주(鄭注)에 이르기를, “大廟은 牛鼎의 鼎이며, 길이가 3척이다.”
- 주 8. 소경(小廟)은 정주(鄭注)에 이르기를 “廊廡의 廡이니, 廊廡의 廡은 길이가 2척이다.”하였다.
- 주 9. 풀이하기를 廟中(廟中)의 문을 위문(闕門)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아(爾雅)의 글이며, 이것은 곧 잡기(雜記)에 이르되, “부인이 이르면 위문으로부터 들어온다”고 함이 이것이다
- 주10. 이러한 전조후침 제도는 원류가 아주 오래다. 아마도 서주시대의 ‘전당후침(前堂後寢)’ 제도에서 발전되어 나온 것 같다
- 주11. 이 책은 명나라 신종(神宗) 연간인 1609년(만력 37) 전후한 시기에 왕기(王圻), 왕사의(王思義) 부자가 만들었다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 다시 말해서 천문에 서부터 곤충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전 분야에 관한 그림을 모으고 그것에 관련된 설명을 수집하여 정리한 책이다. 106권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으로서 동양학 그림 백과사전이라 할 책이다
- 주12. 경복궁 창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복궁 및 주요 전각의 이름을 지은 정도전은 주제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조선의 체제를 정비하는데 이를 수용하고자 하였다(한영우, 1992). 또 숙종(肅宗) 때의 윤백호(尹白湖) 문집에 고공기에 관한 연구기록이나, 18세기 정다산 등 일군의 실학자들이 고공기를 널리 탐독하였다는 사실 등에 근거함.
- 주13. 정공인 광화문의 정문
- 주14. 창건 경복궁에 관한 기사인 태조실록 8에 “..... 午門三間 在殿門之南.... 南曰光化門 樓三間有上下層.....”중 바로 오문에 해당하는 문임
- 주15. 경복궁의 정전인 근정전의 전문(殿門)
- 주16. 경복궁의 편전인 사정전의 전문
- 주17. 경복궁의 왕 정전인 강령전을 구획하는 침전의 정문
- 주18. 이러한 궁문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는 줄져(1998), “전통공간의 구성원리에 관한 연구”의 부록 경복궁과 창경궁도를 참조하기 바람.
- 주19. 이러한 4대 궁궐의 문의 형식과 주제와의 비교에 있어서 이강근(1983)은 삼문을 고문(庫門), 치문(維門), 노문(路門)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삼문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불분명하다 또한 그 스스로 창건 경복궁의 구조와 주제의 삼문삼조 제도와의 비교에 있어서 홍례문이 삼문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거론하고 있으며, 노문이 문으로서가 아니라 사정전 뒤 회랑으로 구성된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논문에서 이강근(1994)은 창덕궁과 창경궁, 경희궁

의 치문과 노문이 어느 문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 주20. 이의 참고자료가 되는 궁궐도로서는 서울대 규장각 소장인 경복궁에 관한 북궐도형(北闕圖形)(규장각 고문서 9978), 창덕궁과 창경궁에 대한 동궐도형(東闕圖形)(규장각 고문서 9980), 경희궁에 대한 서궐도안(西闕圖案)(문화재관리국,1991)을 기초로 하였다
- 주21. 이에 대한 근거는 줄져(1988)의 내용과 부록을 참조하기 바란다.
- 주22. 보통 지금까지는 궁궐의 영역을 첫째, 왕이 신하들의 조하를 받는 정전, 곧 법전과 일상 업무를 보는 편전으로 구성된 군, 둘째 왕과 왕비, 직제가족으로서 왕자, 공주 등의 일상생활공간, 셋째 궁내에 있는 정사와 왕과 왕비, 왕족의 일상생활을 뒷받침 해주는 공서들의 세 개의 군으로 나누고 이들 세 개의 간물군중에서 첫 번째의 왕이 정사를 돌보는 전각들을 외전이라 하고, 두 번째의 일상생활을 위한 전각들을 내전으로 분류하여 왔다(주남철, 1985:126~127). 그러나 홍순민(1996:76~79)은 경복궁의 창건기록인 태조 4년(1395) 9월 29일(경신)에 대한 태조실록의 기록에 근거하여, 내전에는 연침인 강령전과 강령전의 동소침인 연생전, 서소침인 경성전 그리고 왕이 시사하는 장소라는 의미의 보평침인 사정전과 그 부속 건물들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보다 실증적으로 파악한 홍순민의 견해에 기초하여 편전을 내전으로 포함시킨다.
- 주23. 고태전은 후에 청시대에 만들어 덧붙여진 것이라고 한다
- 주24. 주나라의 종묘제도에서 묘 안은 전묘후침(前廟後寢)제도로부터 발전하였다고 한다.(윤정숙 역, 1995.p.162)
- 주25. 조선시대 지방관아로서 최상위 관아였던 감영의 전체구성은 진입문인 포정문을 지나 중심공간은 중삼문(中三門)과 내삼문(內三門)에 의하여 정청인 선화당(宣化堂) 영역과 살림집으로서 내아(內衙) 공간으로 이원화시키는 특징을 찾을 수 있다(최영철, 1994)고 한다

### 인용문헌

- 1 賀棻鈺(1995) 중국 도성제도의 이론, 윤정숙 역 서울. 이희출판사
2. 국토개발연구원(1982) 주례고공기(초) 서울 국토개발연구원
3. 김동욱(1999) 조선시대 건축의 이해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4 김영도(1998) 전통공간의 구성원리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박사학위논문
- 5 김지민(1993) 한국의 유교건축. 서울 도서출판 발헌
- 6 董鑾泓(1993) 중국도성발달사 성주탁 역주(1993) 서울. 학연문화사.
7. 樓慶西(1996) 궁궐건축 한동수 역 서울 도서출판 발헌
- 8 李允祿(2000) 중국 고전건축의 원리 이상해 등 역 서울 시공사
- 9 서울학연구소(1994) 궁궐지1 서울 서울학연구소
- 10 \_\_\_\_\_(1996) 궁궐지2 서울 서울학연구소

11. \_\_\_\_\_(1996) 조선왕조실록중 서울관련기사색인. 서울: 서울학연구소
12. 유정기 감수(1992) 사서오경. 서울: 금성출판사.
13. 이강근(1993) 한국의 궁궐. 서울: 대원사
14. \_\_\_\_\_(1983) 경복궁에 관한 건축사적 고찰. 정신문화연구원 부속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 \_\_\_\_\_(1994) 조선시대의 궁궐건축계획. '94 서울학세미나 II 발표논문집. 서울: 서울학연구소
16. 최영철(1994) 조선시대 감영의 건축적 구성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박사학위논문
17. 한국문화재보호협회(1991) 동궐도. 문화부 문화재관리국.
18. 한국조경학회(1999) 동양조경사. 서울: 문운당
19. 한동수(1997) 증국고건축·원림감상입문. 서울: 세진사.
20. 현영우(1973) 정도전 사상의 연구. 서울: 한국문화연구소
21. 홍순민(1996) 조선왕조 궁궐경형과 양궐체제의 변천. 서울대학교 대학원 극사학과 박사학위논문.